



‘가정간편식’을 인기 TV홈쇼핑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인 가구 증가로 집에서 혼자 간편하게 요리하는 이들이 늘고, 불황에 외식을 줄이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까닭이다. CJ오쇼핑 ‘국민셰프’ 포스터(왼쪽)와 정기배송 서비스로 선보이는 롯데홈쇼핑 ‘더반찬 한상차림’ 사진제공 | CJ오쇼핑·롯데홈쇼핑

TV홈쇼핑, ‘가정간편식’을 잡아라

롯데홈쇼핑, 먹거리 개발+정기배송 서비스 CJ오쇼핑, 셰프가 ‘국민’ 콘셉트로 식품 개발 1인 가구 늘고 불황 속 외식 줄여 블루오션

부부 등 매번 식사를 챙겨 먹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집밥과 반찬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게 핵심이다.

회사 측은 “기존 레토르트 형태의 간편식과 달리,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아 집밥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제조했고, 모든 제품은 방송 주문 후 당일 제조해 냉장상태로 배송된다”고 했다.

CJ오쇼핑은 ‘국민(요리방송)’ 콘셉트인 ‘국민셰프’를 선보였다. 유명 셰프가 직접 출연해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가정간편식 제품을 선보이고 요리법도 제안하는 홈쇼핑 ‘국민’, ‘국민 누구나 가정에서 쉽게 셰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이연복·정호영·미카엘 등 유명 셰프가 직접 만든 좋은 상품을 소개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우선 3인 셰프 상품을 내놨지만 추후 2~3명 정도 추가 영입한다는 게 회사 측 계획. 홈쇼핑 CJ오쇼핑 방송 콘텐츠담당 PD는 “최근 셰프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제품의 맛과 품질에 있어서도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셰프 상품을 한데 모은 프로그

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기존 홈쇼핑에 없던 재미와 정보가 함께 있는 차별화된 푸드 쇼핑 방송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밖에도 NS홈쇼핑은 가정간편식 레시피 개발을 위해 요리경연대회인 ‘NS Cook fest 2017’을 열기도 했다.

이렇듯 TV홈쇼핑이 가정간편식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1인 가구 증가로 집에서 혼자 간편하게 요리하는 이들이 늘고, 불황에 외식을 줄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가정간편식 주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거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식품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맛·신선도·영양까지 챙긴 제품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정호상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은 “가정간편식에는 가격·만족도 등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인 합리적 가치 소비 트렌드가 반영됐다”며 “무조건 저렴한 상품이 아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행하는 만큼, 향후 고객관점에서 차별화된 프리미엄 식품·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가정간편식을 잡아라!’
TV홈쇼핑 업계에 떨어진 특별 미션이다. 완전조리 혹은 반조리 식품을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말한다. 롯데홈쇼핑이 대표주자로 유명 셰프와 협업 상품을 출시하거나 오프라인 맛집 인기 메뉴를 론칭하는 등 다양한 먹거리 개발에 적극적이다. 지난 3월 이연복 셰프의 ‘딤섬&샤오롱바’, 4월 유민주 파티시에의 ‘글래머러스 팽귄 티라미수’, 최근 개그맨 박수홍과 함께 삼겹살과 새우를 접목한 ‘대새물’을 선보인 게 그 예. 여기에 최근 가정간편식 정기배송 서비스를 선보이며 정점을 찍는 분위기다. ‘더반찬 한상차림 정기배송 서비스(7만9900원)’가 그것으로, 1인 가구 및 맞벌이



“편리하고 편(fun)한 편의점 세상을 열다”
세븐일레븐이 신규 모바일 앱 ‘편편’을 론칭하며 온라인 플랫폼 강화에 나섰다. 편의성·혜택·소통이라는 3대 테마 아래 다양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담았다. 도시락 예약발주 기능이 핵심으로, 도시락 상품을 원하는 날짜와 점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모델들이 최근 세븐일레븐 소공점에서 ‘편편’을 선보이고 있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세븐일레븐

이베이코리아-LG전자 맞손, 공동마케팅 나선다
이베이코리아와 LG전자가 맞손을 잡았다. 최근 서울역삼동 소재 이베이코리아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 이번 협약으로 이베이코리아는 신제품부터 프리미엄 라인까지 다양한 LG전자 상품들을 G마켓·옥션·G9에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온라인 고객만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차별화된 판촉 활동을 한다는 게 회사 측 계획이다. 또 LG전자는 이베이코리아를 통해 온라인 고객에 집중하고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인사
농림수산식품부 <승진> △국립종자원(동부지부장) 기술서기관 김기연 <전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차주행정담당관 서기관 김재형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부이사관 배상두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장 부이사관 정현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기술서기관 이재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기술서기관 오상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서기관 이장의 △국립종자원(경남지원장) 서기관 강민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기술서기관 박정훈

부고
◇남상남 씨 별세·이현섭 전 조흥은행 기업본부장 명숙 한국걸스카우트 경남연맹장 화석 전 KBS 보도본부장 모친상=11일 0시 경남 삼상창원병원 장례식장 VI P실, 발인 13일 오전 8시 055-233-5131

‘전자랜드 삼성카드7’ 출시 3주년 기념 프로모션

전자랜드가 ‘전자랜드 삼성카드7’ 출시 3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연다.

우선 ‘전자랜드 삼성카드7’으로 여름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50만원 이상 에어콘을 구매하면 36개월 무이자 혜택을, 50만원 이상 제습기 및 공기청정기 행사 모델을 구매하면 24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또 에어컨·공기청정기 또는 에어컨·제습기를 패키

지로 250만원 이상 구매하면 5만원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전자랜드 삼성카드7’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자동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호주 4박6일 여행권, 2등 2명에게 제주도 에어가텔 2박3일 여행권, 3등 10명에게 놀이공원 이용권을 증정한다.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

강주현의 퍼즐월드

7			9			1
	4	1	8	5		
2			5		8	
8		5	9		7	
2		9			1	5
1		6	4		9	
6			4		3	
	2	7		5	8	
4			3			6

		6		1		5
	1			9		6
3			2	5		1
		9	7	8	3	
1	2					8 9
		8	1		9	2
8			5	1		7
	7			8		3
		5		7	1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토쿠정답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9	6	2	8	1	7	4
1	8	9	7	2	6	5
2	5	1	4	9	8	3
8	6	7	2	9	1	5
5	9	1	8	6	7	2
2	7	6	1	9	8	5
6	8	7	9	5	2	1
3	2	5	8	1	7	9
1	7	9	6	2	8	4

날씨와 생활 12일(수요일)

서울	20/10	인cheon	20/10	충청	20/10
25	33	24	29	24	33
대전	20/10	청주	20/10	강릉	10/10
25	33	25	34	25	35
광주	10/10	전주	10/10	울산	10/10
23	34	24	33	23	34
제주	10/1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대구	10/10
25	30	최저	최고기온°C	25	36
		날씨	범례	창원	10/10
				23	34
				부산	10/10
				23	31

해돋이 05:20 / 해질 19:54 달출 21:51 / 달몰 08:00

산 날씨	바다 날씨	미세 먼지
북한산 25/32	인천송도 25/29	서울 20 좋음
설악산 26/35	제주도 24/31	부산 36 보통
오대산 21/33	경포대 26/35	대구 24 좋음
계룡산 25/33	속초 24/34	인천 26 좋음
속리산 22/33	대천 24/30	광주 26 보통
소백산 23/33	안면도 꽃지 24/30	대전 29 좋음
팔공산 25/36	변산반도 24/32	울산 36 보통
지리산 21/34	거문도 25/31	경기 24 좋음
덕유산 21/33	철보 26/33	강원 18 좋음
내장산 23/33	해운대 24/31	충북 18 좋음
한라산 21/28	제주도 24/29	경남 35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13일(목) 서울경기 25/32 25/35 26/34 24/34 24/31 25/31

14일(금) 서울경기 24/31 25/35 26/35 24/32 25/33 24/32 26/33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12일(수요일) 음력: 윤 5월 19일

쥐	오늘의 마음: 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우왕좌왕하기 쉽고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 한 가지 일에 매진하지 못하는 날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길방: 서
소	오늘의 마음: 쾌청, 힘찬 하루. 운세: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공연이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인생행로는 목척자를 향한 긴 여정이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길방: 남
호랑이	오늘의 마음: 여명, 일출 직전. 운세: 매사 초지일관한 자세로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교묘한 술책으로 주변인을 움직여 큰 이익을 바라는 날이다. 그러나 내가 당하기도 한다. 길방: 남
토끼	오늘의 마음: 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계망동을 삼가야 할 때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키기가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길방: 북
용	오늘의 마음: 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날이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길방: 남
뱀	오늘의 마음: 맑음, 평화롭다. 운세: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오늘은 일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그저 게으름만 부리는 날이다. 그러나 마음속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다. 길방: 중앙
말	오늘의 마음: 해, 번개, 갈등. 운세: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 않는다.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제까지 잘 나갔던 사람은 흉한 날이며 어려웠던 사람은 좋은 날이다. 길방: 동
양	오늘의 마음: 싸움, 소심한 날. 운세: 상대방과 의견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헛된 고집을 버리고 친애와 협조에 마음을 쏟을 일이다.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길방: 남
원숭이	오늘의 마음: 쾌청, 상쾌. 운세: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고매 우월한 위치에 등극하게 된다. 오늘의 출장근거가 잘 성사되어 내일은 보상받는 날이 되었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길방: 북
닭	오늘의 마음: 구름, 자유 추구. 운세: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오늘은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괜히 성질부터 다 자신만 상처입는 날이다. 길방: 북
개	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계망을 삼가 하라. 오늘은 감정적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들은 나에게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다. 길방: 남
돼지	오늘의 마음: 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오늘은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고독하며 반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지만 참고 견디면 놀랄만한 결과도 얻을 수 있다. 길방: 서
재운 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 3, 6, 8, (5, 0)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소, 뱀, 닭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호랑이, 말, 개

한국ABC 인증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1위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신지 않습니다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발행인 송영언 대표전화 02 2020 0114 현대이민트루 02 2020 1065 (우)03187 서울특별시 중구 창계로 1

편집부 02 2020 1032 경재부 02 2020 1062 2008년 3월 3일

편집인 이성춘 스포츠1부 02 2020 1041 뉴미디어전략 02 2020 1027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편집국장 연재호 스포츠2부 02 2020 1059 사진부 02 2020 1069 2008년 3월 24일 창간

광고국장 이숙옥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쇄 동아일보사 sol@donga.com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